



수 있는가? 나는 반대로 아마존을 보호하고 환경 범죄를 막는데 있어 정부주도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현재 브라질 열대우림을 둘러싼 문제는 결국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법적인 환경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

아마존을 둘러싼 문제들은 우리가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르는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누군가가 화재를 내더라도, 뚜렷한 책임이 없기에 사람들은 장기적인 불이익보다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며 아마존을 파괴한다. 그러나 아마존의 토지들이 다수의 개인들의 소유라면, 누가 근시안적인 이익을 위해 방화를 저지르겠는가? 오히려 토지의 소유주들은 화재와 같은 낭비적인 방법보다는 더 지속 가능한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이는 법치사회에서 다양한 토지 소유주들이 각기 다른 토지 관리 방법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이 번성할 것이고, 근시안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손실을 볼 것이다. 결국 아마존을 관리하는 주체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방식을 추구하도록 스스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자산에 대해 공동의 책임이 아닌, 개개인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식 토지 관리 방식보다, 개개인이 토지를 소유하여 스스로가 최적의 토지 관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brazilian-socialism-shows-us-how-not-to-take-care-of-forests>